



2001년 우수화장실사진 및 용품전시회를 마치며

글과장 이석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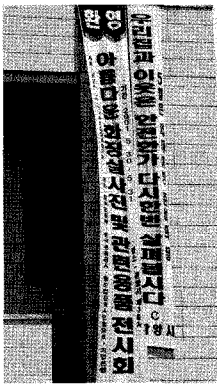
화장실문화 개선운동을 추진하면서 가장 효과가 크고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화장실 관련 사진 및 용품전시회라는 생각이 든다(지난 호에서 계속)

주최 : (사) 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 개최도시
 후원 :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월드컵문화시민중앙협의회, 기업은행
 일자 : 4월 3일~ 4일, 김천시(문화예술회관)
 4월 10일~12일, 경상남도(청사로비)
 4월 25일~26일, 진주시(경남 문화예술회관)
 5월 8일~10일, 김해시(삼성 홀플러스)
 5월 18일~21일, 구미시(화합의 광장)
 5월 25일~26일, 전주시(전북 학생회관)
 5월 30일~31일, 광양시(청사로비)
 참가 : 로얄토트, 동우씨엔, 데코판넬, 시민텍,
 향기마을사람들, 진성산업, 대우산업,
 덕우, 대림콩크리트, 한국월드그린,
 오성환경산업 (11업체 회원사)

로운 화장실로 변모되어 전국을 대상으로 한국관광공사 및 월드컵문화시민협의회 등에서 시상하는 우수화장실에 여러 번 선정되어 우리에게 화장실 개·보수의 표준적인 모델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겠지만 김해시 역시 시장님이 화장실문화개선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많은 시민들이 아름다운화장실이 있는 「김해여객터미널」을 자랑스러워하고 더불어 화장실문화의 개선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다. 특히 옛날 가야국의 발생지인 김해는 많은 문화유적과 역사를 바탕으로 다수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도시로써 화장실문화개선은 더욱 청결하고 아름다운 김해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다. 김해시의 화장실문화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신현동씨는 화장실의 신속도 중요하지만 기본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연구가 동반되어 개·보수하면 더 좋은 화장실문화개선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듣고 화장실문화개선을 위해 최일선에서 뛰는 야전사령관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김해시는 경상남도에서 마지막 전시로 일반인의 많은 관람을 유도하기 위해서 삼성 홀플러스에서 전시회를 갖게 되었다.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참가 회원사와 더불어 고생을 많이 해서인지 이 글을 쓰면서도 새삼 기억이 새롭다. 그러나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일반인들의 관람이 예상보다는 적어 아쉬웠지만 김해시민 개개인도 화장실에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있어 조금 놀라웠다. 하지만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김해시는 「김해여객터미널」이라는 유명한 화장실이 있다. 기존의 낡고 지저분한 화장실을 기본적인 외형만을 남기고 전체적인 개·보수 작업을 통해 새

구미시는 경상북도 도민체전과 더불어 행사한 전시회는 도민체전이 열린 시민운동장 옆에 마련된 화합의 광장에서 열렸다. 구미시 환경위생과 홍운현 계장님을 비롯하여 환경위생과 직원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받았고 처음으로 야외에서 가진 전시회라 여러모로 고생도 많이 되었으나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회원사 여러분께도 새삼 고마움을 느낀다. 구미시의 화장실문화개선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시가지에 인접하여 구미시민의 유일한 휴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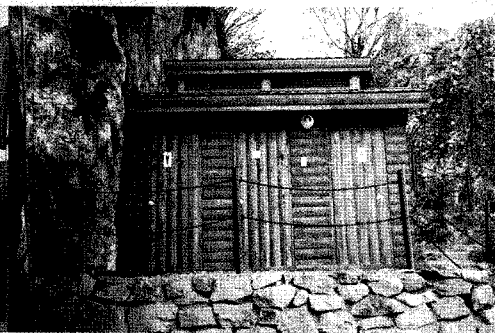


▲전남광양시청에서 열린 전시회





▲전주시 전복학생회관에서 열린 용품전시회



▲금오산국립공원에 설치된 화장실 전경



▲전시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자시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처로 자리잡은 금오산은 1970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아름다운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등산로와 정상에 3개소를 설치하였던 화장실은 산악이 압반으로 형성되어 경사가 급하고 지대가 높은 지형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汚水)를 하수처리장으로 유도하는 관을 매설할 수가 없었고 또한 계곡으로 방류도 할 수 없어 부득이 재래식화장실로 만들어 설치하였으나 수거방법과 냄새의 발생 등 관리상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하지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요즈음 활발히 일고있는 친환경적인 화장실문화개선을 위해 관심을 갖고 연구한 결과 불결하고 냄새가나는 재래식화장실을 완전소멸식으로 대체하여 분노를 수거하지 않고 방류도 필요없는 완전소멸식 화장실로 바꾸었다. 지하의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냄새는 탈취시설을 별도로 두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쾌적하여 등산객에게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개선하였다. 전시성 화장실이 아닌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 실용적이고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나는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끝으로 금오산 공원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는 공중화장실의 특성상 이용자의 사용의식이 부족하여 내 집의 화장실처럼 유지되지 못하고 시설물이 파손될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말을 덧붙여 우리 협의회도 화장실문화개선운동 하면서 공감하는 부분이며 앞으로 청결사용 캠페인에 많은 노력을 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전주시는 서울, 수원 등과 더불어 화장실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전국에서 개방화장실이 가장 활성화 되어있으며 월드컵에 대비하여 화장실 정비사업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작년에 이어 전북학생회관에서 열린 전시회는 전주에서 추진 중인 재래식 화장실의 개·보수, 위생업소와 주유소 등 700여 곳의 민간소유 화장실 개선사업을 염두에 두고 열렸지만 담당자의 열의와는 달리 많은 관람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다.

광양시는 포항에 이어 우리나라 제2의 제철소가 있는 곳이다.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우수화장실 사진 및 용품전시회를 갖게 되어 협의회와 회원사 역시 많은 기대와 관심으로 행사에 열의를 갖고 방문하였다. 광양시는 “전라남도 제1의 아름다운화장실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듯 『2001 광양사랑 환경사랑 한마당』이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환경주간을 선포하고, 환경 지킴이 발대식과 더불어 이번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누구보다도 배연호 계장님과 실무자들의 노력으로 행사기간동안 많은 사람이 전시장을 관람하여 큰 보람을 느꼈고 무엇보다 노력하고 실천하고 있는 광양시청 환경과 직원여러분께도 이 글을 통해 감사를 드리고 싶다.

작년 처음으로 월드컵 개최도시 순회전시회를 시작하여 우수화장실 사진 및 용품전시회가 2년째를 맞이하여 경상 남·북도 와 전라남도 광양까지 전국순회를 하고 있다. 이제는 어느새 화장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어 화장실을 내 집처럼 이용하고 한 줄서기를 지켜 가는 모습이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흐트함과 새삼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